

## <국어 - 공통>

1. 정답: ②

세 번째 문단의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를 통해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③

세 번째 문단의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흥내를 내는 것,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 내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③

[A]에서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듣기.말하기와 달리 읽기 발달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 정답: ③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아닌 데이터의 이동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정답: ⑤

세 번째 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④

세 번째 문단에서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A 은행이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정답: ①

㉠의 '쉬워져(쉬워지다)'는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되다.'라는 의미이고, ①의 '용이(容易)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의미이므로 서로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의 '따라(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의미이고, '근거(根據)하다'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따위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다.'라는 의미이므로 서로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

8. 정답: ⑤

두 번째 문단에서 압전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이용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9. 정답: ④

세 번째 문단에서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이라도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서로 달라진다.

10. 정답: ⑤

세 번째 문단의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더 크게 되는 것은 고유 주파수 값이 아니라 진동 폭임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②

네 번째 문단에서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농도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면 농도가 커졌을 것이므로,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을 것이다.

12. 정답: ④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였는데,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는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정답: ⑤

시험은 정약용만 주장하였고(유형원: 과거제 대신 공거제 주장),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은 유형원의 주장이다.(정약용: '선사' 선발→교육→시험→관료 선발)

14. 정답: ③

㉠은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은 신분과 무관하게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면 사회 지배층이 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므로,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정답: ⑤

ㄱ은 사농공상의 사민 체제에서 지배층인 사가 도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과 상통하므로 정약용은 동의할 것이다. ㄴ은 노비에게는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6. 정답: 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17. 정답: ①

㉠과 ㉡의 '굳어지다'는 '...으로'와 함께 쓰이며, '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다.

18 ⑤

'어머니의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하는 행동과 '편지로 낮을 덮'는 행동을 통해 춘양은 아버지의 장원급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19 ②

[B]의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지에 가림에,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를 통해 편지를 받는 이 (숙영남자)를 만나고 싶지만 집으로 갈 때까지 당장 만날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0 ③

㉠에서 '접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통해 숙영은 자신의 운명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1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고 있으나 승천을 망설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숙영 부부가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②

(가)에서는 '마을, 외딴집,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린 시절 화자의 모습을 '연'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지도를 보고 나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④

노인이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끼는 일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④

'외로이 자랐다' 와 '하얀 뉘'은 외롭게 살아온 화자의 모습을 하얀 뉘으로, 어린 시절 화자의 슬픈 삶의 과정을 '붉은 발자욱'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함축된 정서와 상반된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③

㉠'아실아실'은 '아슬아슬'의 방언으로 높이 뜬 연을 꾸며 주는 말이다. 따라서 ㉠이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26 ②

㉠은 물에 사는 사람도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도 있고, 배를 집으로 삼아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잠깐이나 눈을 돌려 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27 ④

<보기>에서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름으로써 의미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①

몽달 씨는 '그날' 밤에 김 반장이 자기를 쫓아내는 매정함을 경험했으면서도 김 반장의 형제슈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주고 있다.

29 ④

㉠은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김 반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고 있다. ㉡에서 "그렇지요? 맞죠?" 라며 약이 올라 견딜 수 없어하며 다그쳐 묻는 데서 알 수 있다.

30 ⑤

'여기'는 형제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이며, '그날'은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낸 날이다. '요즘'은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난 이후에 내가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을 때이다. 여기까지는 '나'가 김 반장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낸 이후로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달리 평가하고 있다.

31 ④

㉢에서 '나'의 상상력으로 몽달 씨를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게 한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정보이므로 독자는 서술자를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②

(나)에서 '활활 살살, 광광쌍쌍, 주섬주섬, 와지끈 푹푹, 너슬너슬'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

33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은 변화가 많은 인간사를 드러낸 것이지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다.

34 ①

'용'은 '소먹이는 아이들'이 흥이 겨워 부는 피리 소리에 잠 깨어 일어난 것으로 비유한 것이므로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생매'는 사냥을 위해 길들인 것이므로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